

환절기 불청객 '비염' 정확한 원인 파악 중요...방치시 합병증

건강 바로 알기 알레르기 비염

류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등 다양한 알레르겐이 원인이며 증상을 방지하면 축농증, 중이염, 후각 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는 1월과 2월 각각 90만명대를 기록했는데 3월 들어 127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4월은 146만명으로 환자 수는 3월보다 더 늘었다. 특히 0-9세 아동 환자가 전체 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의 차이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진드기, 동물 털, 곰팡이,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항원)에 코 점막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 질환

꽃가루·진드기·동물 털·곰팡이 등 원인 다양...3~4월 환자 발생 급증
축농증·후각 장애 등 합병증 위험
습도 50~60% 유지 수분 섭취 도움

환이며, 증상이 코감기와 유사해 방지하면 축농증, 중이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꽃물과 재채기 등 주요 증상이 코감기와 비슷하지만 두 질환은 발병 원인부터 다르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나타난다. 반면 코감기 원인은 바이러스다.

알레르기 비염은 발작적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 주 증상이며 이외에 눈이나 코가려움, 눈 충혈, 두통, 후각 감퇴 등 증상이 동반된다. 반면 코감기는 인후통, 몸살, 발열 등 전신 증상이 일반적이다.

단순 감기로 오인해 감기약만 복용하거나 방치하면 합병증 또는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 2주 이상 콧물이 나오거나 봄철 같은 특정 계절 환경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진다면



류찬 전문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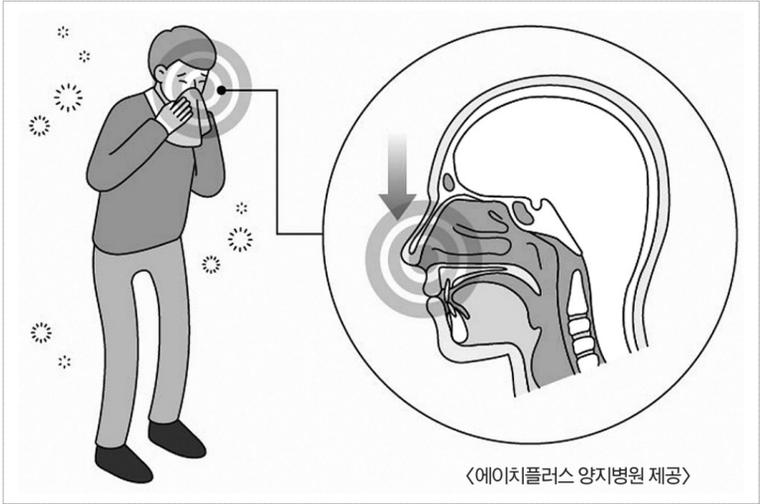
일반적인 치료제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항히스타민제가 대표적이며 원인 알레르겐(알레르기 원인 항원)을 소량부터 차츰 농도를 높여 투여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면역요법과 수술요법 등이 있다.

주변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집먼지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청소, 세탁이 필요하다. 또한, 카펫, 담요 사용은 삼가야 하고 꽃가루가 날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피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와 환경 관리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 30%는 천식을 동반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유아는 성장하면서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행진 양상을 보일 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제공>

다. 건조한 환경은 증상 악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 20~22도, 습도는 50~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며,

면역글로블린E 검사와 피부반응 검사를 통해 알레르겐을 확인하고 증상에 맞는 약물치료와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늘 환자 곁에서 공감·소통하는 간호·간병서비스 최선”

조선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2배로 확대...환자중심 간호

“늘 환자 곁에서 따스한 손길과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와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의 김민희 수간호사가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환자 간호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긴장 속의 하루를 보낸 소감을 밝혔다. 특히 진료 인력 감소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미소 띤 표정으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 선 믿음직스럽고 강인한 책임감이 묻어났다.

조선대병원은 의정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난해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상을 기존 21병상에서 41병상으로 2배 늘렸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안전과 조기회복을 목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과 병동지원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직접 돌보는 제도이다. 또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사회적 부담과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문객을 제한해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국가건강보험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김 수간호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간호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나의 서



조선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와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스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해왔던 환자의 개인 위생부터 식사·간호 등 일상적인 일에서 간호가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일반 병동보다 환자와 접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간호사의 근무 자세에 따라 환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의 병상 확대는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적극 장려한 정부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간병비 부담 절감이라는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 입원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 장기화로 최근 지역병원의 진료 역량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대병원도 실력을 갖춘 의료진과 최신사양의 의료장비

확보로 환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으며, 입원자 등 중증질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원자의 경우에도 간호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치료비 부담이 큰데 하루에도 십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입원하려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수간호사는 “암투병 중인 한 환자가 가족들이 돌봐주니 고맙고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다는 환자의 강한 의지에 되려 우리가 더 큰 힘을 받기도 한다”면서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환자중심의 간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이창준 광주 퍼스트이비인후과 원장

‘국제 공인 수면다원검사 전문가’ 취득



이창준(사진) 광주 퍼스트이비인후과 원장이 최근 ‘국제 공인 수면다원검사 전문가(RPSGT)’ 자격을 취득했다.

RPSGT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장애 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미국 BRPT(Board of Registered Polysomnographic Technologists)에서 주관한다. 이 원장은 앞서 유럽수면연구회(ESRS)에서 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번 RPSGT 자격을 취득하며 수면의학 분야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창준 원장은 “수면장애는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질환이라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퍼스트이비인후과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수면 검사와 치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대병원, 차세대 스텐트 개발 한·영 협력세미나

전남대학교병원이 지난 4일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영국 런던대학교와 함께 한·영 협력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한·영 협력세미나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보훈병원 정명호 교수(전남대병원 명예교수), 전남대병원 세포재생연구센터장 안영근 교수, 한국심혈관스텐트연구소 소장 홍영준 교수,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주환 교수, 순환기내과 과장 심두선 교수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John Martin 교수,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교 Anthony Mathur 교수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본

쇼난가마쿠라종합병원, 아일랜드 퀘이대 대학, 차의과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한국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시지바이오와 오렌드바이오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기존 금속 약물 용출 스텐트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비플러미 약물 용출 스텐트, 재내피화 촉진 스텐트, 생분해 심혈관계 스텐트에 대해 논의했다. 또 무선 압력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혈압 모니터링 및 AI 기반 SMART 테크놀로지 기술의 심장질환 적용을 주제로 임상의, 과학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앞으로 발전할 미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